

中國人 學習者의 特性을 考慮한 韓國語 教育

晋靜欄¹⁾

1. 서론

한국어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약 7,000만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전 세계 약 140여 개국에 사는 700여만 동포들의 민족어이다. 또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국어는 최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어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들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의 수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 320 여개, 중국 100 여개, 미주 72 여개, 중앙아시아 66 여개, 동남아시아 35 여개, 유럽 46 여개 등으로 집계된다. 일본과 미국, 호주 등의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교육되고 있으며 각국의 대학입시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어의 학습자와 교육기관이 증가하면서 기관의 교육 목적이나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 및 교재 마련을 위한 노력도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에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현지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현지 대학 한국어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Integrated Korean'이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발전상은 교사 양성기관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과 미국 지역에서는 현지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사 양성을 위해 별도로 한국어교원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어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외국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며 한국어 학습자와 교육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의 한국어교육은 단기간에 양적으로 팽창한 결과로 규모의 확대 속도에 비해 교육의 질, 특히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도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일본인이나 서양인 학습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졌음이 관찰되고 그 특성이 교육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학습자의 연령, 학습 목적, 학습 경험 등의 학습자 특성은 그 학습자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긍정적으로도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성공적인 학습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개발이나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습자를 학습 활동의 주체로 보는 학습자 중심 교육 방법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 교육 과정 수립, 교재 개발, 교육 방법 선

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교수, maylanchin@cufs.ac.kr

정 등을 할 때 고려해야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은 현재 양적으로 팽창된 중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마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현황

(1)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

중국에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은 60여 년 전인 1946년으로 남경의 ‘국립동방언어 전문대학(國立東方語言專門大學)’이 최초였다(김철, 2008:277). 그 뒤로 몇몇 소수의 대학에 조선어/한국어학과가 연이어 설립되었으나 그게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1992년에 이르러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과 문화교류가 강화되면서 이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할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시장이 급팽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 6월 현재, 76개의 중국 국립대학에서 약 8,200 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공하기에 이르렀다(김철, 2008:287).²⁾ 이외에도 사립대학이나 전문대 및 사설학원의 수강생들까지 더하면 중국 전체에서 2만 5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노금송, 2009:34).

중국 대학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은 중국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조항록(2003:258)에 의하면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 전공 목적의 교육과정’이며 주된 교육목표는 ‘한국어 교육 전문 인력의 배양과 한국어 사용 직무 능력 배양’이다(엄녀, 2009:248 재인용). 즉, 중국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한국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회인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전공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한국어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언어이므로 한국어를 구사 능력을 갖추어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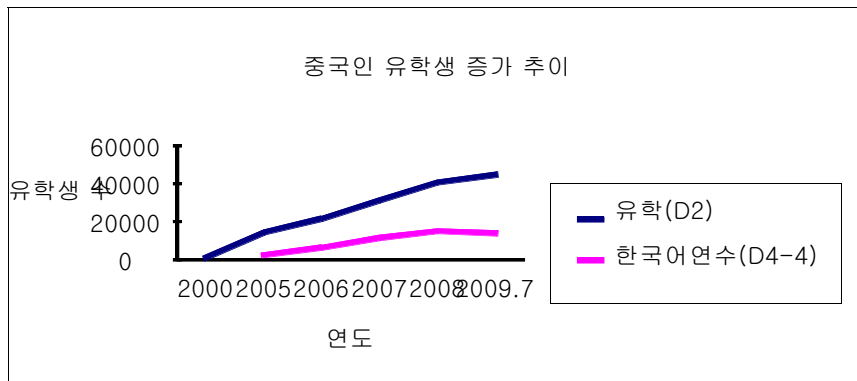
한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수는 한중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왔는데 이들은 입국 목적에 따라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연수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와 고등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으로 구분된다.

[표1]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⁴⁾

2) 중국 교육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9년 7월 현재, 중국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국어과정을 개설한 중국 대학의 수가 100개를 넘었다고 한다.

3) 김철(2008:288)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목표가 '전문인재양성과 취업'의 두 가지라고 말한다.

4) 이 수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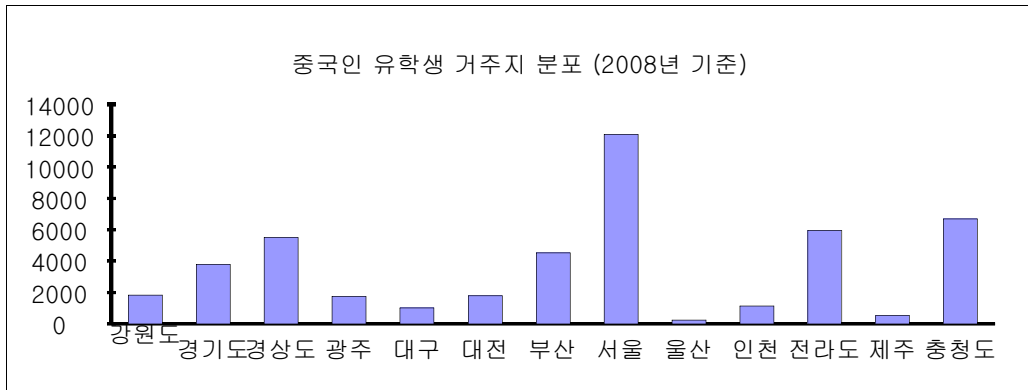
2000년 이후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이를 보면 한국어 연수자 수보다 유학 목적의 중국인 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중 단순히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학습하는 일반목적의 학습자보다 한국어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문 목적의 학습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 학습자들도 과정 이수 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이 학업 수행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강승혜(2003)에 의하면 연세대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어 학습 동기와 목적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진학 목적 40.6%, 취업 목적(직장 업무 관련 포함) 26.5%, 한국에 대한 관심 21.6%로 나타났다(김미옥, 2006:4 재인용). 이관식(2008:329-330)의 조사 결과에서도 광주 지역 거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중 48%가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학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36%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52%는 한국 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중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39%는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진학과 취업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확실한 학습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되던 거주지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과 경기, 충청권을 포함하는 곳에 25,554명이 거주하여 전체 중국인 학생의 50% 이상이 수도권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⁵⁾

[표2 중국인 유학생 거주지 분포도]⁶⁾

5)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가리키나 수도권 전철 운영을 기준으로 하면 충청남도 아산시와 천안시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충청도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표현하였다.

6) 이 자료는 2008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습득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학습 지역의 차이에 따라 이들의 학습 실태는 차이가 있다. 이관식(2008)과 전은주(2003)는 각각 광주와 부산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거주 지역의 문화와 방언 등, 학습자 거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과 한국어 교육

3.1 학습자의 특성과 언어 교육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마련이 필요함이 자주 언급된다. 이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 가진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를 지식의 수용자로서 학습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전통적인 교사 주도적인 학습과 반대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말한다.⁷⁾ 이 교육 방식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중요시하는데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선정, 교재 개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학습자의 특성으로는 학습자의 연령,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자가 익숙한 학습 전략 및 학습 방법, 학습자의 학습 목표, 외국어의 구사 능력 등이 있다(Harmer, 2007:81-106; Ur, 1991:273-316; Brown, 1987:99-121).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의 특성을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학습자 특성 파악을 위해 학습자들의 현황조사와 요구조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교재개발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영어권과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군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장 큰 학습자군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인

7) 권낙원(2000)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개념'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성격을 ① 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교육, ②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교육, ③ 학습자의 자유선택을 강조하는 교육, ④ 학습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⑤ 교사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 ⑥ 내용과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 ⑦ 방법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 ⑧ 인간의 자연적 심리 발달과정과 일치하며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등으로 설명한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성격의 조사가 조금씩 진행되었다.

김정우(2005)의 연구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현지 교수진과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교재 개발에 이들이 요구하는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에 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당시 현지에서 사용되던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평가가 주를 이루어 학습자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는 않았다. 김미옥(2006)은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 중인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령대, 한국어 학습 동기와 목적, 원하는 학습 내용, 선호하는 교수법과 학습법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국어권 학습자의 특정한 오류 유형에 대한 교정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 내용의 선정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나이가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생활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 도입에서부터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방법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수진(2006)과 박현선(2008)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회화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관식(2008)의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대한민국) 광주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징(연령 및 학년, 한국어 수준,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체류 기간, 유학 및 한국어 학습 동기, 졸업 후 계획 등)과 한국어 학습 관련 특성(주당 한국어 수업 시수, 선호 수업 활동, 선호 한국어과목, 한국어 수업 만족도, 전공과목 수강 시작 적절 수준,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정보 숙지, 한국어 학습 무료 사이트 숙지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 알아야 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연령, 한국어 학습 동기, 선호하는 학습 내용, 선호하는 교수법 및 학습법, 선호하는 교육 자료(교재 및 부교재 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령층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연령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김미옥(2006)에서는 조사 대상 기관에 적을 둔 중국인 학습자 79%가 20대라고 밝혔다. 이관식(2008)의 조사에는 학습자 연령에 관한 정보가 없으나 조사 대상 학습자의 75%가 대학 1·2학년인 것으로 보아 역시 20대 초반의 어린 학습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를 보면 2008년 현재 국내 체류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제외) 총 121,754 명 중 46,278 명이 21-25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6-20세의 중국인 체류자도 8,300명이나 되었는데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을 온 경우, 17-18세이므로 이들 중 상당수도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이렇게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연령이 20대 초반으로 매우 낮아진다.

학습자의 연령은 교육 내용 선정과 교수 방법 선정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김미옥

(2006: 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 생활에서 기숙사에 기거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한국에 온 후, 자기 스스로 생활 관리를 잘하지 못해 학습에 소홀해지기 쉽다. 이는 이관식(2008:33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학습과 생활 전반에 걸친 밀착형 지도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내의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숙사에 중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지도 교사를 배치하고 입학 초기 6개월-1년 정도까지 정규학교 수업 이외에 기숙사에서의 방과 후 수업까지를 포함하는 초기 집중 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2) 학습 동기

한국어 학습의 동기는 중국과 한국의 학습자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왕단, 2008:282; 박현선, 2008:314-315; 염창권, 2007:275). 그러나 한국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진학(김미옥, 2006:4)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관식, 2008:330). 즉,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진학을 목적으로, 이미 한국 대학에 진학한 학습자들은 귀국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는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활발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등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적, 내적 동기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도구적인 동기로 인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취업을 하거나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목적의 언어 학습자가 아니라 학문 또는 취업 목적의 특수목적 학습자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한국어교육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또한 이들의 목표 성취를 돕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학습 내용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접하는 교육 내용은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학습자들의 경우는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 학문목적의 학습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어 과목 중 회화와 듣기(청취)를 가장 좋아하고 실용적인 학습 내용을 선호한다(김미옥, 2006:4; 이관식, 2008:332).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것도 전통 문화보다는 현대 문화에 관한 항목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다. 윤해연(2006:77-78), 박현선(2008:315-316), 김병운(2006:52), 노금송(2009:48-49), 최희수(2005:214), 염창권(2007:277), 김철(2008:288-291) 등이 모두 중국의 한국어교육이 실용 한국어 회화 중심

8) 이 자료를 근거로 중국인 체류자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1위가 21-25세(246,278명), 2위가 26-30세(19,590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36-40세, 31-35세, 41-45세, 16-20세였다.

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에 따라 특수 목적의 한국어교육 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한 한국어 구사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지식 습득, 한국어와 기타 전문 지식과의 통합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한 교육 과정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주로 발음 및 억양, 어휘, 문법 등인데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들이다. 발음과 억양의 경우, 학습자들도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 음운과 중국어의 간섭 등을 학습의 걸림돌로 본다(박현선, 2008:319-320; 임성희, 2006:5-6; 염창권, 2006:40-41; 김정우, 2005:110-112). 어휘는 한국어 고유어의 동의어, 다의어, 유의어, 존대어에 대한 학습이 어렵고 의성어, 의태어가 모음의 변화에 따라 갖는 어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한자어도 글자가 같아도 한국과 중국에서 의미가 다른 경우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사용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밖에 드라마나 인터넷 등 대중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유행어나 속어, 은어 등의 오용도 늘어나고 있다. 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사 사용, 연결어미 사용 등에 오류를 많이 범한다.

(4) 교수법과 학습법

최근 세계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교수법이 언어교육의 주요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교수법인 문법번역식,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의사소통적인 교육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미옥(2006:6)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 중 과락이나 유급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은 이유 중의 하나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부적응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중국인 학습자들 대상의 선호하는 교수법 조사에서도 강의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교수자의 강의 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교사에 의한 설명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교수법에 익숙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수 학습 활동 관련 조사(이관식, 2008:331-332; 최수진, 2008:55-56, 58-59)에서는 개인 활동, 짝 활동, 소그룹 활동, 대그룹 활동 중에서 소그룹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정자(2001)는 이를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체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한다(김미옥, 2006:5 재인용).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교사들은 토론하기와 대화 암기하기를 선호하는 데 반해 학습자들은 역할극, 토론하기, 노래배우기 등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초급 과정에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중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을 잘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학습에 관한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9) 이관식(2008:331-33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강의자 중심 수업'보다 '2-3명 정도 소그룹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자가 교수법과 학습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설문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3.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앞에서 우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을 마련이 필요함을 보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이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육 과정

현재 중국 대학의 한국어과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그 목적이 ‘한국어 교사 배양’과 ‘한국어에 능한 전문 인력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특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였다(노금송, 2009:48-49; 김철, 2008:288-염창권, 2007:268-277; 김병운, 2006:52-53; 윤해연, 2006:74-77).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한국어교육이 실용적인 기능 습득에 치우쳐져 있으나 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한국학을 연구할 수 있는 교육,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복합형 인재¹⁰⁾를 양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사회의 한국어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그러한 인재의 실제 수요자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학습 내용이나 학습 방법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그간 학습자들의 요구분석에 대한 연구는 김정우(2005), 최수진(2008), 염창권(2006)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학습자들의 취업 대상이 되는 기업체 등에서 원하는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구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교육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김병운(2006)의 주장과 같이 최상급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어학 및 문화 관련 전공 교과목 이외에도 한국어교육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특히 언어교수이론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현재 중국 내의 한국어교육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중국의 교육 현실을 알고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이 분야의 교육은 조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재 개발

10) 복합형 인재란 외국어 전공과 기타 전공과목을 함께 익혀 언어능력과 기타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말하며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외국어+경제', '외국어+문학', '외국어+번역', '외국어+무역' 과 같은 형식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는 중국 내에서 집필되어 출판된 것과 한국에서 집필되어 중국에서 출판된 것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재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 선정이 미흡하고 일부 내용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어 한국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주도적인 자세로 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내용 선정도 필요하나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고 어떤 학습 활동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어 교수진들은 아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전문 교사가 매우 부족하다. 많은 교수들은 한국 문학이나 한국사를 전공한 비한국어 전공자들이며 한국인 교수진의 경우 주로 회화 과목 수업을 주로 담당하므로 교재 편찬이나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중요한 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집필된 교재들의 경우, 한국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대부분이 대학 전공을 위해 구성된 교재가 아니라 한국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합교재로서 중국 대학의 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의 교육 현실과 학습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진과 교재 개발, 교육 방법 등 언어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진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고 공동 작업을 하는 한·중 한국어 교수진들의 저적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인 교수진은 현지의 학생과 교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교재의 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한국의 교수진이 교재의 주제 선정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것에 중국 교수진의 원어 설명이 추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확한 한국어 표현을 담은 실제적이면서도 학습자의 학습 수월성을 돕는 교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교재 이외에 다양한 학습 부교재 개발도 시급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교재는 책과 듣기 연습용 테이프(혹은 CD)만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비한국어 전문가 교사가 많은 중국 현지의 교육 환경을 감안하여 교육 내용이나 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담긴 교사용 지침서가 추가로 제작되어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학습자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대학의 특성상,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충분한 자습과 복습이 가능하도록 많은 양의 연습 문제와 학습 자료가 담긴 워크북 형태의 보충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내용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를 통해 얻어진 많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오류 생성을 막을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육 방법

중국인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활동이 ‘따라 말하기’나 ‘대화 암기하기’ 등인 것을 보면 아직도 이들이 언어를 상호작용의 도구로 인식하기보다는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배운 표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면 학습한 표현을 현실 언어 사용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과제 중심의 활동이 구성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의사소통적인 과제 중심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수자들이 다양한 언어 교육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들이 최상위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여 중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한 최적의 교육은 한국인과의 소통, 한국 사회 체험 등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직접 경험을 위해서는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교수·학생의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온라인 콘텐츠나 영화·드라마·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간접 경험도 좋은 학습 활동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학습에는 양국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이해를 도울 교수자가 있어야 한다.

4. 결론

본고는 이상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이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한국어 교육의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용 한국어 학습을 선호하고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을 요구한다. 한국어 발음과 어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적인 방식의 교수법인 문법번역식이나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익숙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호하는 학습 활동도 소극적인 소통 방식을 취하는 소그룹 형태를 선호하고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 분석과 중국 사회의 한국어 사용 분야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먼저 실시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분한 양의 교육 자료가 제공되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충분한 자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재 집필에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언어 교수이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 선정에는 한중 언어대조를 통한 연구 결과물을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방지를 가능케 하는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사용한 상호작용 훈련이 가능하도록 과제 중심의 학습 활동 구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학습자의 특성을 정리하였고 이를 반영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 개발이나 교재 개발 등의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자 하는 한국어 교육자에게 기초적인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이나 어휘, 문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 선정

등과 같은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 논문의 한계임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국문

- 김미옥,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제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 pp. 1-10
- 김병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학연구』 제15호, 2006, pp. 45-66
- 김영수, 「중국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0호, 2007, pp. 417-435
- 김정우,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중국 교수·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제16권 1호, 2005, pp. 99-129
- 김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및 그 미래」, 『한중인문학연구』 제24호, 2008, pp. 275-308
- 노금송, 「중국 북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제23호, 2009, pp. 33-59
- 박현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과 회화교수방안에 대한 제언」, 『한중인문학연구』 제24호, 2008, pp. 309-333
- 엄너, 「평가 기준을 통한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제18권 1호, 2007, pp. 235-262
- 염창권,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어교육』 제18권1호, 2007, pp. 263-294
- 염창권,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한족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새국어교육』 제74호, 2007, pp. 25-48
- 왕단,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중국어 표준화 연구」, 『한글』 제282호, 2008, pp. 277-316
- 윤해연, (2006). 「중국 내 한국어문학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그 해법」, 『한국학연구』 제15호, 2006, pp. 67-86
- 이관식, 「중국인 유학생의 특성과 한국어 학습실태 조사」, 『어문연구』 제 36-3호, 2008, pp. 319-341
- 임성희, 「학습자 중심 교육론과 한국어교육」, 『제2차 한·중·조 Korean 교육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 2006, pp. 1-11
- 전은주, 「국제 도시 부산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14권 2호, 2003, pp. 361-401
- 최희수,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되는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0호, 2005, pp. 211-226

영문

Brown, H. D.(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 Hall, pp. 99-121

Harmer, Jeremy (2007),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pp. 81-106

Ur, Penny(1991),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 Press, pp. 273-316

인터넷 문헌

권낙원, 「학습자 중심 교육의 성격과 이론」, Retrieved August 29,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blog.naver.com/jeje1121/20012250512>

이완기, 「학습자 중심 교육의 원칙과 실행 방법」, Retrieved August 29,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tewardess.inhatc.ac.kr/philoint/eng-data-teaching-n-thesis/4-teaching-data-15-student-centered-edu-lee-wanki.htm>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icient Korean Education Method for Chinese Learners -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arners

Chin, Chongnan

This paper outlines some characteristics of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makes suggestions to make the qua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nese learners better. According to LCT(Learner-centered teaching), the learner characteristics are the key factor of learning success or failur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learners: 1) Aged around early of 20; 2) Aiming to get a job or go to the higher institution after studying Korean; 3) Wanting to learn practica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stead of academic ones; 4) Preferring to perform small group activities rather than interactive activities. To develop more efficient Korean language program focused on Chinese learner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earner friendly curriculum and teaching contents which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learner's demand must be made first and also some supplemental materials like teacher's guide, workbook for self studying, multimedia aids, internet resources are should be offered.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Chinese Learners of Korean, Learner-Centered Teaching, Learner Characteristics